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김동일 한방병원장, 김포 중앙승가대학교 건강강좌 개최

지난 4월 30일 김동일 한방병원장은 중앙승가대학교 화경당에서 비구니 학인스님을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좌는 ‘비구니 스님들의 건강 위험 신호’를 주제로 학인 스님들의 건강한 수행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됐다. 비구니 스님들은 사회적인 통념이나 오랜 세월 동안 여성 질환 사각 지대에 놓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김동일 한방병원장은 이날 강의를 통해 놓치기 쉬운 여러 가지 건강 위험 신호와 건강관리법에 대해 강연을 해 비구니 스님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이날 강의에 함께 참석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건강증진센터는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특화된 승가 케어 프로그램과 승가검진, 스님 전용 공간운영에 대한 안내를 했으며, 종단차원의 승려복지제도 중 의료복지에 대한 소개도 진행했다.



바이오헬스통합 데이터망 구축 기술 개발 참여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진행하는 ‘선행 공통데이터모델 기반 분산형 바이오헬스 통합 데이터망 구축 기술개발’에 참여한다. 공통데이터모델(Common Data Model, CDM)은 각 의료기관 별로 다양한 전자건강기록(HER) 양식을 공통모델로 전환하여 표준화하는 기술이다. 이번 사업에는 약 39개의 병원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했으며, 기술개발 사업은 총 3년간 약 40억 원을 투입해 CDM 확장모델 개발을 하게 되고, 협력병원이 함께 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연구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는 DM통계연구소(소장 이윤석)가 주축이 되어 본 기술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며, 연구부(부원장 김광기)와 의료정보팀 등의 협력으로 의료 빅데이터 활용 연구에 노력할 것이다. 이로 인해 동국대학교일산병원도 국내외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빅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및 새로운 의료 비즈니스모델 발굴 시도가 가능하게 됐다.

2018년 교직원 대상 잠복결핵검진 실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교직원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했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되었지만, 현재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몸 밖으로 결핵균이 배출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는 전파되지 않는다. 그러나 면역력이 약해지면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검진과 치료를 통해 결핵 발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의료기관 종사자는 위험군과 무관하게 입사 시 잠복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기준에 따라 위험 군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주기적인 잠복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는 2016년 12월부터 전 직원에 대해 면역학적 검사인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GRA)를 시행하고 잠복결핵감염 직원에 대해 치료를 진행해 왔다.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완료한 경우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을 약 90%까지 예방할 수 있으므로 사전 예방과 전파 차단을 통해 안전한 병원 환경 조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스토리

행복한 소왕국 부탄으로의 성지순례

글 박 완 임



2017년 신행우수자 5명(권오형, 김호준, 류윤희, 박완임, 최해송)은 덕유 법사스님 자헌 부전스님과 함께 지난 4월 13일부터 20일까지 ‘행복한 소왕국 부탄’으로 대승불교를 접할 수 있는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우리나라와 부탄은 직항로가 열려있지 않아 방콕을 거쳐 멀리 돌아서 가야했지만, 삶에서 누구에게나 오는 행운은 아닌 부탄으로의 여행은 떠나기 전부터 조금은 힘들고 고된 일상에 마음 한쪽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따뜻한 햇볕이 되어주었다. 일정의 많은 시간을 종(Dzong)이라 불리는 불교 사원을 방문하여 그곳에 간직된 그러나 사진촬영 금지로 담을 수 없어 아쉬웠던 아름다운 부처님과 탕화를 보고 때로 스님께서 들려주는 법문에

고개 끄덕이며 빙긋이 미소 지으며 보낸 그 시간은 모두에게 힐링으로 다가왔다. 신행우수자들은 입을 모아 “짧지 않은 시간을 성지순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병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어른과 빈자리를 고운 낮빛으로 채워주신 동료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마음을 전했다.